36. 2300 주야
2012. 9. 2.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성소정결 문제는 옛 이스라엘의 지상성소봉사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늘성소봉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성소정결이 무었을 뜻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300주야까지라고 한 숫자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9장에 가서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9:22.23]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1. 목사님, 다니엘 8장에 2300주야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해석은 9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 그럼요, 그러니까 9장에서 해석을 찾아야한다고 말한 것이지요. 8장에 이상이라는 말이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두 번씩 있고, 13적, 15절, 16절, 17절, 19절에 한 번씩, 26절에 두 번, 27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첫 번째 이상이라는 말은 “라”입니다. 이 말 외에 11번은 모두 “하존”이라는 말과 “마르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말이 중요합니다. 하존과 마르에를 같이 사용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하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체 계시를 나타내고, 마르에는 그 전체 계시 중에 어느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다니엘 8장과 9장에는 확실히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1번 사용된 중에 16절에 마르에를 썼고, 26절에 두 번 이상이라는 말 중에 첫째 것과 27절에 이상이라는 말이 마르에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마르에라는 말이 세 번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16절에서 “내가 들은즉 을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라고 했는데, 전체 계시 중에서 짐승들에 대한 것과 작은 뿔에 대한 것들을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야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17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18절부터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설명하지요. 26절을 보면 설명해주는 천사가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고 말하여 주야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다고만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바로 마르에입니다. 8장에서 짐승과 뿔들에 대한 이상은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전체 이상 곧 하존 중에서 설명하지 않는 마르에가 주야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주야에 대한 이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이 끝나니까 다니엘이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작은 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하는 행패가 예사롭지 않는데 그 주야에 곧 기간에 대한 것은 설명하지 않

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27절에 나타나 있지요.“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 8장에 2300 주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것이 9장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존과 마르에에 대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그것이 9장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9장은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무렵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단9:20~23을 읽으시지요.

단9:20~23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감사합니다. 21에 보니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다고 했는데, 이전 이상이 8장의 이상이지요.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입니다. 8장 이상의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8장의 이상을 설명한 가브리엘이 9장에 나타났는데, 이때는 8장에 이상을 본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8장 이상이 기원전 551년인데, 9장은 53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때 8장에서 다 설명하지 않은 이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온 것입니다. 23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이상”이 바로 “그 마르에”입니다. 8장의 하존 중에 설명되지 않은 마르에는 주야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 마르에를 깨달으라고 하면서 24절부터 바로 기간에 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9장 21~23에 말하는 이상이라는 말, 즉 하존과 마르에를 8장에 기록한 하존과 마르에와 대조하면 이것이 바로 8장에 2300주야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예, 목사님, 그렇게 연결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아까 8장에 12번 나타난 이상이라는 말이 하존과 마르에로 기록된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군요.

답: 그렇습니다. 애청자들께서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두 낱말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하존은 계시 전체를 뜻하고, 마르에는 그 전체 계시 중에 어떤 부분들을 말할 때 사용했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에가 짐승과 뿔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와 주야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사용되었는데, 짐승과 뿔에 대한 것은 설명하고 주야에 대한 마르에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13년 후에

비로소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8장의 하존 중에서 설명해주지 않은 그 2300 주야의 마르에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2300주야와 9장의 70이레에 대한 계시를 깨닫는데 중요한 것이니까요.

4. 그러니까 사용한 단어를 통하여 8장의 2300 주야의 마르에를 9장에서 설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장에서 주야에 대한 이상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답: 9:24~27까지 그 설명이 있는데, 우선 24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좀 읽으시겠습니까?

[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라고 했으니 확실하지요. 그것들을 위하여 70이레, 이레는 7일입니다. 7일일 70번이 되는 기한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정했다는 말은 “하타크”인데, 잘라내었다는 뜻입니다. 칠일이 70번 되는 기간을 어디선가 잘라내었다는 말인데, 7일이 70번이니까, 490일입니다. 이것을 어디선가 잘라내려면 이미 어디선가 말한 어떤 기간이 있어야 잘라낸다는 말이 합리적이 됩니다. 또 그 기간은 490일보다는 긴 기간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8장의 마르에 중에 설명하지 않은 마르에가 2300 주야뿐인데, 그것이 바로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490일은 2300 주야에서 잘라내었다는 뜻입니다. 2300 주야는 바로 2300 일이지요. 그 중에서 490일을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기간으로 잘라내었다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5. 성경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이유라도 계시되어 있습니까?

답: 글쎄요, 아마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기간에 행하실 일이 여섯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9:24에 있는데, 70 이레를 잘라내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섯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상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일은 모두 구주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70 이레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70 이레를 잘라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유대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업을 수행하시는 첫 번째 걸음으로 유대민족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 되어 탄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없이하시며 죄악을 영원히 속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며 이상과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며 지극히 거룩한 것에 기름을 바를

것입니다.

6. 그 내용들은 다 구원 사업과 관계된 것들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허물이 마친다고 했는데, 허물은 페샤인데 반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주께서 오셔서 인류의 반역을 끝내도록 하실 것이며, 죄가 끝난다고 했는데 구주께서 오셔서 죄는 하타아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난다는 말은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지요. 죄악이 영속된다고 했는데, 죄악은 아온인데, 죄의 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는 죄의 책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의 벌이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실 죄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은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의 이상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중심입니다. 이 기간에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내용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나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즉 이 기간에 하늘 성소의 봉사 준비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번역한 말은 코데쉬 카다쉼인데 지성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성소에서 봉사할 준비가 갖추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잘라내어 따로 계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같네요.

7. 그런데 목사님, 2300 주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이상한 것은 기간은 있는데, 시작점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을 알면 끝은 당연히 알 수 있지요. 70 이레나 2300 주야의 시작점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 그럴 리가 없지요. 시작점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연하게 기간을 말씀하실 분이 아니지요. 8장에서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기간의 시작점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주야에 대한 것을 설명해준다는 것은 시작점을 설명해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기간 끝에 있을 사건은 이미 말했으니까요. 70 이레가 2300 주야에서 잘라낸 기간이라고 할 때 그 시작점이 바로 2300 주야의 시작점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2300 주야를 말할 때에 시작점을 말하지 않았는데, 70 이레를 가르쳐주면서 그 시작점을 가르쳐주었으니까요.

8. 70 이레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군요.

답: 물론입니다. 9:2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목사님이 읽으세요.

[단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

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는 때가 70 이레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어서 70 이레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을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다음에 말하고 이 시간에는 시작점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가 언제인지 알면 70 이레와 2300 주야의 시작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9. 성경에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 당연하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지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성전 중건을 중점적으로 명령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성읍 중건도 함께 명령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4:26~28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성취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방해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중에 다리오 6년에 다시 중건명령이 났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고레스의 명령 후 18년이 지난 때이지요. 그래서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중건이 끝났습니다.(스6:15)

10. 그러면 70 이레, 곧 2300 주야의 시작이 고레스의 명령 때입니까 다리오의 명령 때입니까? 헷갈리네요.

답: 헷갈리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고레스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 명령을 그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세 번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그 세 번째인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조서를 70 이레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11. 왜 그때를 시작점으로 보는지요? 그때를 시작점으로 보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물론 확실한 이유가 있지요. 재림교회가 2300주야와 70주일의 시작점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기원전 457년으로 잡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유대인 귀환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 7장 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조서 내용을 보면 그분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2300주야나 70이레를 올바르게 깨닫는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그러면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답: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에 대하여 조금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대로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5~27을 읽어보지요. 목사님, 좀 읽으시지요.

[눅24:25~27]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 쓴 예수님 자신에 관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지요. 과연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의 계통으로 올 것인지, 탄생할 장소, 봉사 활동할 내용,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 등에 대하여 여러 곳에 여러번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1:10~12을 읽어보실까요.

[벧전1:10~12]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기를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와 시기에 대하여 예언한 곳은 오직 다니엘 9장 24~27에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때를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점으로 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하면 70이레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9:25에 70이레 기간 중에 기름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했거든요.

[단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기름부은 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야가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입니다. 합해서 69이레가 지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한 번 읽어보시지요.

[단9: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

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는 기름부은 왕이 끊어져 없어지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즉 예수께서 기름부음 받은 때와 십자가에 달리신 때 중에 어느 연대이든지 거기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하면 그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모두 69이레이니까요.

13. 목사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애청자들께서 다음 시간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예언 연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가르쳐주셨지요. 모든 애청자들이 반드시 깨닫도록 성령으로 총명을 주시옵소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하기에 넉넉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